

오키나와와 베트남의 ‘경이로운 현실’, 그 반(反)폭력의 세계*

고 명 철

(광운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동아시아의 오키나와와 베트남은 서로 다른 전쟁을 치렀으나,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폭력의 임계점을 넘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존재 자체를 근절시키려 했다는 점은 두 전쟁이 공유하는 전쟁의 파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 오키나와와 베트남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담당하였고, 때문에 일본 본토로 복귀하려는 오키나와가 미군정 및 미국의 군사기지에서부터 해방되고자 한 조국복귀운동에도 베트남전쟁의 문제는 오키나와와 분리할 수 없는 주요 현안이다. 따라서 이들 전쟁과 관련한 문학적 응전은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오키나와전(후)와 베트남전(후)의 객관현실을 다루는 오키나와전쟁 서사와 베트남전쟁 서사 속에서 출현하는 유령의 존재에 주목한다. 이 유령은 이들 지역의 대자연(해안, 바다, 숲, 밀림, 개울, 골짜기, 고원 등)과 관계를 맺는 장소를 중심으로 전쟁의 폭력을 상기시킴으로써 그것을 망각 및 왜곡하는 데 맞서는 놀랍고 충격적인 ‘경이로운 현실’을 생성시킨다. 이 ‘경이로운 현실’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소통의 길을 내고 그들 모두 전(후)의 객관현실에서 반(反)폭력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 정치적·윤리적 주체로서 유령의 정동을 보증해준다. 따라서 이 유령의 정동은 이들 지역에서 한갓 괴기스러운 비현실적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이 지역의 산 자들의 삶과 함께 하는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다.

요컨대, ‘탈식민 냉전’에 대한 문학적 응전으로서 오키나와와 베트남의 ‘유령 서사/경이로운 현실’은 이들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또는 전후 평배해진 폭력에 대한 반(反)폭력의 세계를 회구하는 문학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도록 한다.

주제어 : 탈식민 냉전, 오키나와, 베트남, 유령 서사, 경이로운 현실, 반(反)폭력

*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NRF-2019S1A5A2A03034606)

1. 문제제기: ‘탈식민의 냉전’에 대한 문학적 응전

오키나와와 베트남은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 이 투박하고 단순한 물음은 결단코 그 답변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지역은 제국의 식민주의의 억압과 강제를 경험하였는데,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오키나와전쟁)에 휘말려 일본 본토 수호를 위한 일본군과 그에 맞선 미군의 파상적 공격이 벌어진 곳으로, 전후 미국과 소련으로 재편된 양극화의 냉전체제 아래 미·일안보체제의 전략적 희생양으로서 미국의 군사기지로 전략해 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은 2차 대전 후 냉전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초강국 미국에 맞서 베트남민족해방투쟁을 이룩하기 위한 베트남전쟁(1965~1975)에서 승리하여 베트남통일국가를 세운다. 이렇듯이 이들 지역은 제국(프랑스, 일본, 미국)의 식민주의 지배는 물론, 2차 대전 후 형성된 냉전체제 아래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지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오키나와와 베트남이 서로 다른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탈식민 냉전’¹⁾의 바탕에 자리한 역사적 실재이다. 언뜻 보기에, 이들 지역은 서로 관련 없이 각 지역의 현실문제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탈식민 냉전’이란 전지구적 시계(視界)로 살펴볼 때 오키나와와 베트남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오키나와문학의 대표 작가 중 하나인 메도루마 슌(目取眞俊, 1960~)이 “베트남전쟁 때 미군 B29 전투기가 오키나와에서 출격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죽은 미군의 시체를 오키나와에서 씻어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자랐지요.”²⁾

1) ‘탈식민 냉전’에 대한 문제의식은 신옥희·권현익 공편, 『글로벌 냉전과 동아시아』, 서울대출판부, 2019에서 가다듬은 것이다. 특히, 권현익이 제기한 “유럽의 냉전과는 달리 아시아의 냉전, 넓게는 제3세계의 냉전은 왜 그렇게 폭력적이었는가?”(위의 책, 119쪽)의 물음은 이 글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오키나와와 베트남의 ‘탈식민 냉전’의 폭력에 대한 문학적 탐구와 긴밀히 연동돼 있다.

2) 메도루마 슌, 「권두 대담: 내 조국의 상처로 인해 나는 작가가 되었다」, 계간 『아시아』, 2018년 가을호, 10쪽. 미국이 1965년에 베트남전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면서

라고 술회하는가 하면, 또 다른 작가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榮喜, 1947~)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와 베트남전 참전 미군 병사들에 대한 문제작들을 발표했듯,³⁾ 오키나와는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군사적 요충지다. 말하자면, 오키나와는 베트남민족해방투쟁을 저지하고 베트남의 분단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을 한층 공고히 구축하기 위한 군사기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던 섬이다.⁴⁾

그런데, 이들 지역의 '탈식민 냉전'의 관계에서 한층 주목해야 할 것은 오키나와가 미군정의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나 일본 본토로 복귀하는 이른바 '조국복귀론' 움직임이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전·반제국주의 기

오키나와는 베트남전쟁의 근거지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아라사키 모리테루, 『오키나와 현대사』, 정영신 외 공역, 논형, 2008, 47-60쪽). 가령, 베트남전 당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올리시스 S.그랜트 샤프 제독은 “오끼나와 없이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개번 매크맥·노리마즈 사토코, 『저항하는 섬, 오끼나와』, 정영신 옮김, 창비, 2014, 150쪽 재인용)고 언급하는가 하면, 당시 미국 잡지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 편집장은 “만약 오끼나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면, 미국은 지금과 같은 규모로 베트남전쟁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아라사키 모리테루, 『오키나와 이야기』, 김경자 옮김, 역사비평사, 2016, 98쪽 재인용)고 오키나와의 군사전략적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미국의 파상적 공격을 지원한 오키나와를 베트남에서는 ‘악마의 섬’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 3) 마타요시 에이키 문학은 오키나와 작가들 중 오키나와와 미군 기지의 관련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바, 광형덕은 마타요시의 창작 체험과 직결된 그의 ‘원풍경(原風景)’과 베트남전쟁 관련서사를 주목한다. 광형덕, 「마타요시 에이키 문학에 나타난 ‘타자’와의 교섭 과정」, 『오키나와문학의 힘』(오키나와문학연구회 편), 글누림, 2016.
- 4)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설치와 관련하여 대단히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은 첫 미군기지가 일본을 개방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기 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오키나와를 첫 방문한 1853년 7월에 세워진다. 기지를 세운 후 페리 제독은 일본과 류큐 왕국 모두에게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했다(문승숙·마리아 혼 편, 『오버 테어』, 이현숙 옮김, 그린비, 2017 290쪽). 그런가 하면, 오키나와에 들어선 미군기지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 차원에서 한국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오키나와에서 발행된 『류다이분가쿠(琉大文學)』 제8호(1955.2)에 수록된 한 편의 시 「비참한 지도」를 통해 그 문학적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세중,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손지연 옮김), 소명출판, 2019, 156-160쪽에서 해당 시 전문과 함께 그 역사적/문학적 맥락이 상세히 기술되고 있다.

치를 내건 아시아·아프리카 제3세계와의 국제연대를 지향했다는 사실이다.⁵⁾ 오키나와에서 거세게 일어난 1960년대의 조국복귀운동은 미국의 베트남 개입을 베트남민주공화국의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대통령 존슨과 상하 의원에게 베트남전쟁에 대한 항의결의문을 보내는 등 베트남전에 대한 오키나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곧 오키나와의 조국복귀론에 대한 현실정치적 명분과 설득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말하자면,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로 복귀함으로써 미군정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는 군사기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정치적 기대를 품었던 것이다.⁶⁾

이처럼 오키나와와 베트남은 서로 다른 지정학적 조건에 있지만, ‘탈식민 냉전’의 객관현실 속에서 작동되는, 특히 미국이 양쪽에 개입하면서 ‘냉전(冷戰)’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베트남에서 일어난 ‘열전(熱戰)’에 아주 깊숙이 서로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 곤란하다. 그리하여 양측의 문화는 각기 서로 다른 정치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되, 2차 대전 와중 ‘철(鐵)의 폭풍’으로 불릴 만큼 오키나와의 삶을 무참히 파괴시킨 오키나와전쟁(후)에 대한 오키나와전쟁 서사와, 2차 대전 후 엄청난 화력과 군수물자를 쏟아부은 미국 주도의 베트남전쟁에

5) 오세중, 앞의 책, 163-180쪽. 이와 관련하여,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에서도 아시아·아프리카 제3세계와의 국제연대에 관심을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곽형덕, 『아시아·아프리카 작가회의와 일본』,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10권, 2017 참조.

6) 물론, 조국복귀론 외에도 소수의 반복귀론(아라카와 아키라, 가와미즈 신이치, 오카모토 게이토쿠, 나카소네 이사무 등) 또한 엄연히 제출되었다. 그 중 가와미즈 신이치의 조국복귀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반제국주의와 또 다른 정치사회적 쟁점을 뚜렷이 제기한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국복귀론) 왜 ‘위험한가’ 하면, 복귀운동을 추진한 사람들 대부분이 제2차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천황제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전후에는 일단 ‘민주주의’와 ‘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과거의 천황국가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절실한 반성도 없었고, 전후에 새롭게 출발한 일본이라는 ‘국가’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자’라든가, ‘조국’이라든가 하는 서정적인 지점으로 수렴되어 가는 건 당연한 결과였지요.”(가와미즈 신이치, 『오키나와에서 말한다』, 이지원 역, 한국학술정보, 2014, 56-57쪽)

서 살육과 죽음으로 지옥의 삶을 살아낸 베트남을 다루는 베트남전쟁 서사는 특유의 문학적 응전을 실천하고 있다. 그 문학적 응전 중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유령의 서사'다. 이 '유령의 서사'는 양측 문학에서 결코 가볍게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탐구 대상이다. 최근 양측 문학의 이 같은 면모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또는 비평적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⁷⁾ 그래서 양측 문학이 서로 다른 전쟁에 대한 문학적 응전의 구체적 양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반전평화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을 해명하고 있는 학문적·비평적 실천의 성과는 자못 크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동향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유령의 서사'가 갖는 역사문화적 실재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유령 서사의 정치학 및 윤리학의 측면이다. 이 글의 본문에서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강조하건대, '탈식민 냉전'의 지평에서 '열전'의 참상을 겪은 양측 문학에서 '유령의 서사'를 이해할 때 '유령'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무엇보다 이 '유령'의 출현이 양측 문학에서 어떠한 구체적 현실(여기에는 사회문화적 및 자연적 환경을 망라)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유령의 서사'가 다른 유형의 서사와 구분되는 미적 특질에 자족하는 것을 넘어 '탈식민 냉전'에 대한 문학적 응전으로서 미적 수행성을 어떻게 자연스레 실천하고 있는가. 물론, 예의 물음들은 서로 긴밀히 맞물려 있는 바, 이들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또는 전후 팽배해진 폭력에 대한 반(反)폭력의 세계를 희구하는 문학의 존재 이유를

7) 대표적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명선, 「사키야마 다미의 <달은 아니다>론」,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학연구』 50집, 2014 및 「사키야마 다미론」, 『동북아문화연구』 38집, 2014; 조정민, 「역사적 트라우마와 기억투쟁」, 『오키나와를 읽다』, 소명출판, 2017; 유해인, 「트라우마로 자기치유서사로서의 <전쟁의 슬픔>」, 한국문학치료학회, 『문학치료연구』 49집, 2018; 고명철, 「베트남전쟁 안팎의 유령, 그 존재의 형식」, 『푸른사상』, 2018년 여름호 등. 여기서, 분명히 해둘 점은, 이상의 기존 논의들은 각 연구의 시각이 서로 다르고 '유령의 서사'로 호명은 하고 있지 않되, 비현실적 공간과 비현실적 존재의 출현에 두루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찰하도록 한다.

II. 오키나와의 ‘경이로운 현실’: 반(反)폭력의 정동(情動)

오키나와문학에서 오키나와의 ‘탈식민 냉전’이 야기한 폭력의 세계를 래디컬한 문학적 응전으로 전위에서 있는 작가로서 메도루마 슌을 손꼽을 수 있다. 그의 문학에서 유령의 출현은 오키나와문학에서 ‘유령의 서사’가 지닌 문학적 구체성을 살펴보는 데 리트머스지 역할을 맡고 있다.⁸⁾ 이와 관련하여, 메도루마 슌의 문학에서 무엇보다 예의주시할 것은 유령관 연관된 장소가 지닌 물질성이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에서 유령은 오키나와전쟁으로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오키나와의 현실에서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군기지로부터 야기되는 유무형의 온갖 폭력의 세계, 즉 ‘탈식민 냉전’의 엄연한 객관 현실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메도루마의 슌의 작품 속 유령은 이러한 오키나와의 객관현실과 관계를 맺는 존재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가해진 폭력의 현장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유령이다. 그래서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이 차마 감당할 수 없을 임계점을 넘어선 폭력의 과잉이 난무한 오키나와 현장에서의 슬한 죽음들은 분명 생명력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령’의 존재로서 생명력을 부여받아 그 폭력의 생생한 현장 또는 그 현장을 상기시키는 장소에서 산 자에게 현시됨을, 메도루마 슌의 작품에서 만날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유령’은 오키나와 천혜의 자연(해안가, 동굴, 나무, 숲 등)과 매우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⁹⁾ 가령,

8) 이하 메도루마 슌의 문학과 유령의 서사에 대한 논의는 고명철의 「오키나와에 대한 반식민주의로서 경계의 문학」, 제주대학 탐라문화연구원, 『탐라문화』 49호, 2015에서 해당 부분을 이 글의 문제의식에 따라 보완하여 발췌한 것이다.

9) 이하 메도루마 슌의 작품은 「이승의 상처를 이끌고」(『브라질 할아버지의 숲』, 유은경

오키나와전 당시 미군 공격으로 동굴을 이용하여 퇴각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동료들을 남겨둔 채 생존한 작중 인물 도쿠쇼의 오른 쪽 다리가 부풀어올라 엄지발가락 끝이 터지면서 물방울이 맺히더니 어느 날 오키나와전에서 죽은 동료들이 유령으로 나타나 도쿠쇼의 물방울을 빨아 마시며(단편 「물방울」), 오키나와의 새, 벌레, 풀잎, 낙엽, 흙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정령이 깃든 신목(神木)의 위상을 지닌 가주마루 숲에서 신기(神氣)에 지핀 작중인물 '나'가 오키나와전(후)의 현실 속에서 죽어간 영령의 세계와 만나고(단편 「이승의 상처를 이끌고」), 타이완 여공과 오키나와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남아로서 작중 인물 '나'는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로 복귀한 이후 오키나와 내셔널리즘으로 전도된 식민주의 억압(민족차별, 인종차별, 성차별)의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오키나와의 자귀나무 정령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공동체로부터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싸움장에서 유령의 존재로 되살아난데서(단편 「마아가 바라본 하늘」) 읽을 수 있듯, 작품 속 유령들은 오키나와의 '탈식민 냉전'의 현장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 오키나와의 이들 현장은 맹그로브, 상사수(相思樹), 담팔수(膽八樹), 백사장 등이 어우러진 해안가와, 넓게 분포된 석회암 지대에서 빗물이나 지하수가 석회암을 침식하여 자연스레 형성된 중유동굴, 그리고 가주마루, 긴네무, 야자수나무, 부용꽃 등속의 타이완, 필리핀, 열대 아메리카 등지에서 이식돼 토착화된 숲이다. 이곳은 오키나와의 '풍속의 세계'(초혼, 정령의 세계)가 에워싸고 있는데, 특히 오키나와전의 참상이 벌어짐으로써 오키나와를 압살한 폭력이 자행된 '죽음의 세계'다. 다시 말해 이곳은 오키나와의 삶공동체를 지탱시켜주는 삶으로서 '풍속의 세계'와 삶공동체를 절멸시키는 오키나와전의 '죽음의 세계'가 서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메도루마 숲의 문학에서 유령의 존재는 바로 이 맞닿은 곳의 틈새에서 그 생명력을 가지며, 이들 유령의 존재는 작품 속에서 실재계의 현실과 명

윤김, 아시아, 2008), 「물방울」(『물방울』, 유은경 옮김, 문학동네, 2012), 「마아가 바라본 하늘」(『어군기』, 곽형덕 옮김, 도서출판 문, 2017) 등이다.

확히 구분되는 환(幻)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작품에서 뚜렷이 읽을 수 있듯, 비로소 ‘경이로운 현실’¹⁰⁾로 나타난다. 이것은 메도루마 숲의 문학뿐만 아니라 오키나와문학에서 곧잘 목도되는 ‘유령의 서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요긴한 문제들(problematics)이다. 따라서 메도루마 숲의 문학에서 목도되는 몽환성과 환상성에서 거듭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오키나와란 섬의 지방문화에서 잉태한 비현실적 존재, 즉 토착적 유령의 출현이 자아내는 오키나와 특유의 지방서사로 인식할 게 아니라 거듭 강조하건대 오키나와전(후)의 ‘탈식민 냉전’의 객관현실 속에서 철저히 압살되고 파괴된 ‘죽음의 세계’와 오키나와의 ‘풍속의 세계’가 마주한 바로 그 틈새에서 놀랍고 충격적인 현실, 즉 ‘경이로운 현실’이 생겨나고, 그것이 지닌 힘이야말로 오키나와전(후)의 폭력에 대한 반(反)폭력의 세계를 서사적으로 구축시킨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경이로운 현실’의 문제들에서 주목해야 할 다른 작가는 오시로 사다토시(大城貞俊, 1949~)와 사키야마 다미(崎山多美, 1954~)이

10) 사실, 필자는 이상의 논의와 흡사한 문제의식을 펼칠 때마다 ‘경이로운 현실(lo real maravilloso)’이 지닌 비평적 함의를 필자 나름대로 섭취하여 작품 해석을 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개념은 라틴아메리카문학에서 ‘마술적 사실주의’ 못지않게 중요한데, 쿠바 태생 작가 알레호 카르펜티에르(1904~1980)가 유럽, 중국, 아랍을 여행하면서 서구인의 시선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비서구의 문화 감각이 존재하듯, 그것들이 지닌 현실의 경이로움이야말로 라틴아메리카문학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카르펜티에르의 이러한 독창적 논의는 그 스스로 서구에서 주장한 반(反)고전주의적 세계관인 바로크와 연관지어면서 애초 ‘경이로운 현실’이 함의한 유럽중심주의 미학에 대한 전복적 사유가 퇴행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경이로운 현실’이 지닌, 대자연과 신화적 세계, 그리고 오랜 서구 식민주의 억압의 역사 속에서 서구의 미학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비서구의 리얼리티를 ‘경이로운 현실’의 문제들로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비평적 방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글에서 오키나와전쟁 서사와 베트남전쟁 서사에서 ‘탈식민 냉전’의 객관현실에 대한 양측의 문학적 응전을 살펴보기 위해 ‘경이로운 현실’의 문제들이 지닌 비평적 유의미성을 적극 담론화하기로 한다. ‘경이로운 현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전용갑, 「신환상성, 마술적 사실주의, 아메리카의 경이로운 현실」, 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33권 1호, 2014, 76-80쪽 및 반년간 『지구적 세계문학』(2014년 가을호)의 ‘고전의 해석과 재해석2’에서 알레호 카르펜티에르를 집중 조명한 것을 참조.

다. 그들의 문학에서 유달리 살펴보아야 할 것은 메도루마 순보다 상대적으로 구술연행(口述演行, oral performance)의 측면에 비중을 둔 '경이로운 현실'이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사다토시의 단편 「아이고 오키나와」(원제는 「6월 23일 아이고, 오키나와(六月二十三日アイエナ—沖繩)」)¹¹⁾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총 8장으로 구성돼 있고 각 장은 특정한 날짜를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1945년 6월 23일부터 시작하여 2015년 6월 23일까지 시간대를 포괄함으로써 오키나와전(후) 오키나와에 일어난 사건들과 연루된 일들을 소설의 형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말하자면, 소설의 형식을 적극 활용한 구술증언의 서사로서 오키나와전(후)에 대한 공식기억(official memory)으로만 환원되어서는 안 되는, 바꿔 말해 공식기억만으로는 온전히 그 역사적 진실을 탐구할 수 없는, 그래서 공식기억‘들’의 틈새로부터 생겨날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서 자리한 비공식기억이 함의한 진실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은 자칫 공식기억의 권위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비공식기억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다는 점에서 사다토시의 이 작품이 갖는 구술증언의 서사는 중요하다. 특히 ‘유령의 서사’가 지닌 ‘경이로운 현실’과 연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할 구술증언은 ‘2장 목소리’와 ‘8장 꿈’이다. 구술증언 서사의 특성상 2장에서 출현하는 유령은 시각으로 재현되되보다 목소리로 오키나와에서 일어났고 현재 진행 중인 지옥도(地獄圖)의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들려주는 소리의 주체는 작중에서 6세 여자 아이로서 미군의 성폭력으로 죽음을 당한 억울한 원혼이다. 이 원혼은 1955년 9월 4일 실제 일어난 이른바 ‘유미코 사건’으로 불리는 미군의 오키나와 어린 여자에 성폭력으로 인한 죽음을 또렷이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그보다 3개월 먼저 흡사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과, ‘유미코 사건’ 이후 미군 성폭

11) 오시로 사다토시, 「아이고 오키나와」(손지연 옮김), 『지구적 세계문학』, 2019년 가을호. 이하 이 작품의 부분을 인용할 때 각주 없이 본문에서 해당 쪽수만 표기한다.

력에 따른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은 물론, 미군기지가 입히는 각종 피해로 오키나와의 어린 생명이 죽어간 현실을 냉철히 담담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폭력의 실상을 낱낱이 증언한다. 6세 여자에 원혼의 목소리는 시각적 형상과 다른 유령의 존재성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오키나와의 놀랍고 충격적인 ‘경이로운 현실’이 지닌 현실의 밀도를 높여준다.¹²⁾ 목소리, 곧 청각에 호소하는 유령의 증언이 근대의 시각보다 뒤떨어진 감각이 결코 아니다. 오키나와처럼 언어절(言語絶)의 대참사를 겪었고 그것의 비극과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 않는/못한 현실에서 도리어 이 전(후)의 현실을, 서구의 모더니티를 시각적으로 앞세운 폭력의 시각과 시각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청각의 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청각의 힘은 오키나와의 구술연행과 맞물리면서 오키나와 문학의 ‘경이로운 현실’이 추구하는 반(反)폭력의 세계를 한층 구체화한다. 이런 면에서 「아이고 오키나와」의 8장은 2장과 다른 측면에서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 작중 인물 ‘나’는 오키나와 근대 역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터에 류큐 열도(列島)를 이루는 작은 섬에서 옛 풍속을 취재하던 중 마을의 노인을 만나 “섬의 풍년을 관장하는 신을 부르는 노래”(306쪽)를 듣고, 노래와 어울린 춤사위를 인상적으로 경험한다. 무엇보다 ‘나’에게 각인된 것은 “내세에서 들려오는 듯한 장엄한 음을 가

12) 여기서 말하는 ‘현실의 밀도’는 지옥도의 현실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재현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다. 6세 여자의 원혼이 목소리의 형식을 띤 유령의 존재로서 생의 모든 것이 파괴당한 6세에 정지돼 있지만, 6세 이후 펼쳐질 평범한 일상(현실)을 친구와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이로운 현실’의 차원에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미래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증언은 ‘지금, 여기’의 시공간의 현실성의 밀도를 한층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쉬운 것도 아주 많아. 내 꿈은 말이야. 다카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 결혼하자고 말이야.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게 아쉬워.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것도 아쉽고, 아빠한테 맛있는 도시락 싸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아쉬워. 귀여운 아기를 다섯은 낳고 싶었고 엄마가 되고도 싶었는데. 그리고 말이야 어른이 돼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243쪽)

진 노래(작품 속에서 '니로스쿠'로 불리우는 '전설의 낙원'이란 뜻을 가진 '나'는 오키나와의 험난한 근대를 성찰하면서, 오키나와의 온갖 폭력의 세계를 일소하는 반(反)폭력의 세계 속에서 희생당한 존재들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두루 낙토(樂土)가 실현되기를, 그리하여 노랫말 속 '미루쿠유(弥勒世)'(306쪽)가 도래하기를 희구한다. '나'가 이렇듯이 작은 섬의 구술연행에 주목하면서 오키나와의 과거-현재-미래를 총체적 안목으로 성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귀를 기울인 때문으로, 그 소음은 "요절한 향토의 사자들의 목소리와 해명"(305쪽), 달리 말해 제국의 근대적 폭력을 상기시키고 있는 소리로 보증된 유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¹³⁾

여기서, 소리와 연관된 유령의 존재를 논의할 때 사키야마 다미의 문학은 오시로 사다토시와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것은 사키야마 다미의 문학을 관류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의식을 해명하는 것과도 연관되는바, 오키나와의 다른 작가들과 비교할 때 언어의 물질성(사키야마 다미식 '섬 말'의 육체성)에 집중적 관심을 갖는 그의 문학 실체를 밝히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¹⁴⁾ 이것은 사키야마 다미 특유의 생의 감각에 의해 생성되고 버려진 문학적 상상력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사키야마 다미는 현재 오키나와 본섬에서 살고 있으나, 그는 전생애

13) 이 유령의 존재와 관련하여 다시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아이고 오키나와」의 유령은 시각적 언어로 재현되는 게 아니라 작중 인물의 증언의 형식, 곧 말을 담당히 건네주는 형식으로 청자/독자에게 전해질 따름이다. 이 작품의 대미를 이루는 하나의 단락(다섯 문장으로 구성)에서 작중 인물 '나'는 오키나와의 근대 역사에서 제국의 폭력에 테러를 가한 그래서 반(反)폭력의 주체로서 확인되는 유령의 존재를 '경이로운 현실'의 차원에서 들려준다. "내 앞에는 녹음이 우거진 정원이 있다. 콘크리트 벽 따위는 없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제거해 주었다. 나는 분명 테러리스트를 목격했다. 우리들의 한 가닥 희망이다."(307쪽)

14) 조정민, 「'오키나와 문학'이라는 물음」/「일본어 문학의 자장과 전후 오키나와의 문학 언어」, 『오키나와를 읽다』, 소명출판, 2017 및 소명선, 「사키야마 다미의 <달은 아니다>론」,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학연구』 50집, 2014.

를 걸쳐 류큐 열도의 작은 섬(이리오모테 섬)에서 태어나 또 다른 작은 섬(미야코 섬)으로 이주했던 삶의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삶에 직결된 섬으로의 이주와 그 작은 섬들에서의 삶은 그만의 ‘섬 말’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바탕을 둔 문학적 상상력을 풍요롭게 길러낸다. 그런데 그의 ‘섬 말’에 촉수를 곤두세워야 할 지점은 그가 섬들의 삶 속에서 ‘섬 말’과 함께 보고 들으며 느끼고 생각했던 섬의 정동(情動)을 수행한 섬의 정령들과 연관된 각종 구술연행이다.¹⁵⁾ 이 섬의 정령들은 그곳에서 삶과 유리된 신비와 마술의 권능을 행사함으로써 섬 사람들을 영적으로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보다 섬의 정령들은 섬의 정동으로서 섬 사람들의 삶 깊숙이 자리하고 이것은 섬의 육체성을 이루는 ‘섬 말’과 상호침투적 관계를 맺는다. 우리가 사키야마 다미의 ‘섬 말’을 그의 문학적 상상력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섬의 구체적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섬의 정령들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키야마 다미의 문학에서 이러한 면모는 정령이 아닌 비로소 유령의 존재로 출현한다. 그의 단편 「달은, 아니다」¹⁶⁾는 그 대표적 소설이다. 이 소설은 곳곳에서 “기괴한 목소리의 울림”(226쪽)이 있는가 하면, 분명 형상을 지니되 실재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정형적 실체가 아니라 일부러 애써 형상을 지우거나 모호하도록 한 비정형적 실체들이 불쑥 출현하는 말 그대로 환시와 환청을 쉽게 목도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의 이러한 모습은 작품의 말미에 이르러 정점을 보여준다. 작중 인물 ‘나’는 책을 전문적으로 편집하는 일을 맡고 있는 터에 어느 날 산책하다가 해안가로 이어진 길로 들어서 해변공원 입구에 이른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사람들이 서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

15) 오키나와는 작은 섬들로 이뤄진 열도(列島)로, 이들 섬에서는 섬 특유의 각종 정령들과 연관된 풍속이 화석화된 전통문화로 보존·기념·전래되지 않고 엄연히 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제의적 구술연행으로서 숨 쉬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와타나베 요시오, 『오키나와 깊이 읽기』(최인택 옮김), 민속원, 2014, 121-137쪽.

16) 사키야마 다미, 「달은, 아니다」, 『달은, 아니다』(조정민 옮김), 글누림, 2018. 본문에서 이 소설의 부분을 인용할 때 각주 없이 본문에서 해당 쪽수만을 표기한다.

존재는 딱히 무어라 특정하기 어려운 인간들의 무리” “여자인지 남자인지, 노인인지 어린이인지 젊은이인지 모르”(315쪽)는, 즉 유령의 존재들을 본다. 그리고 유령들이 말하는 대화뿐만 아니라 침묵도 듣는다. 그 내용의 핵심은 오키나와전(후)의 객관현실에서 빚어진 우여곡절의 슬한 죽음들로 그 심층에는 유무형의 폭력이 자리하고 있다.¹⁷⁾ 작가는 이 대목을 몹시 공들여 분량상 10여 쪽 이상을 할애하면서 소설의 대미를 끝낸다.

그런데, 작가의 이 대미에서 ‘꼼꼼히 읽기(close reading)’가 필요하다. 이 유령들은 “해 질 녘”(325쪽) 해안가 근처 해변공원에 출현했는데, 그곳은 바다가 그리 멀지 않아 습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땀똥고 흠뻑 젖어지는 곳이다. 이곳에서 작중 인물 ‘나’는 유령들을 보고 그들의 곡절많은 사연들이 잉태한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의 언어를 듣는다. 사실, 이들의 대화와 침묵의 장면에 대한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은 그 장소가 갖는 실감이 뒷받침되듯 유령이라는 그들의 존재성을 괄호에 넣어버린다면 실제 현실에서 이뤄지는 것을 재현한 데 불과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령의 출현은 예의 ‘경이로운 현실’의 문제들에서 적극 읽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부연하면, 사키야마 다미의 문학에서도 유령의 출현은 오키나와의 해안가에 인접한 장소성을 가볍게 넘길 수 없고, 이곳은 오키나와전(후)의 상처받은 오키나와 사람들, 특히 죽은 자들이 유령의 존재성을 띤 채 절로 모여드는 집합소란 점에서 주목할 곳이다. 바로

17) 가령, 오키나와전쟁 당시 현민들의 체험을 기록해온 오시로 마사야스(大城將保)의 『오키나와 전투』에 는, “남부전선에서는 전투원과 일반 주민이 같은 동굴에 뒤섞여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울고 부상자는 신음한다. 그러자 적에게 진지가 발각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울어대는 아이를 살해하거나 부상자를 독약으로 처치하는 잔혹한 광경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패잔 심리까지 발동하여 약육강식의 극한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전장에서는 어린이, 노인, 부녀자, 부상자 등 약자부터 순서대로 희생되었다. 이처럼 인간성이 무너져버린 현상이 전장의 진짜 비극을 초래했던 것이다.”(호사카 마사야스, 『쇼와 육군』, 정선태 옮김, 글항아리, 2016, 798쪽)에서 알 수 있듯, 전쟁 폭력에 희생된 슬한 죽음들은 ‘오키나와전(후)=지옥도(地獄圖)’를 자연스레 떠올리도록 한다.

이곳에서 유령들은 자신들의 언어(말소리/침묵을 통해)를 주고받으며, 작가는 이 유령들의 언어를 청자/독자에게 들려준다. 그런데 이 문학적 상상력에서 ‘습한 바닷바람’이 곧잘 강조되고 있으며 바람의 정동에 세밀히 반응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 안 된다.

훈령들의 수련거림이 바람의 속삭임으로 바뀌어 저편으로 사라지
는가 싶더니, 역풍이 불어닥쳐 갑작스런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기세
좋은 목소리가 다시 몰려든다. 소란스럽다. 소란스럽기는 하지만 어
딘가 고요하고 뜨겁다. 끊임없는 대화의 소용돌이가 내 고막을 간질
인다. 쿡쿡, 쿡쿡. 소리는 입속 웃음을 머금은 고백이 되기도 하고
파열하는 조소가 되기도 하며 설교가 되기도 한다...(320쪽)

사키야마 다미에게 습한 바닷바람은 이물스럽지 않다. 그는 작은 섬
에서 출생하여 작은 섬들로 이주하며 그곳에서 섬의 정령들이 섬 사람
들의 삶에 깊숙이 투입해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또렷이 보고 듣고
느끼며 그것으로부터 문학적 상상력을 길러온바, 여기에 습한 바닷바람
의 실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작가에게 바
닷바람은 바다에서 해수면의 온도와 대기중의 기압 차이로 불어대는 기
상학적 측면에서 자연과학으로 인지한 바람이 아니라 세기에 따라 마치
섬 사람들이 때로는 악다구니치는 거센 말들도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미풍처럼 수련거리기도 하고 속삭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 점 바람도 불
지 않듯 침묵하기도 하는 등 말의 생리로 체득한 것이다. 말하자면 작가
에게 바닷바람은 섬 사람들의 삶의 생리와 함께 하는, 그래서 섬의 정동
과 다를 바 없는 바람의 정동을 지닌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닷바람의
소리도 자연스레 생명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안공원을 땀들
며 만들어지는 ‘휘익 휘익’(325쪽)의 바람소리도 단순히 바람이 물리적
으로 만들어내는 음향의 경계를 넘어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유
령들이 주고받는 언어(말과 침묵)의 육체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그렇
다면 이 또한 좁게는 사키야마 다미의 문학에서 유령의 존재가 갖는

‘경이로운 현실’이 문학적 재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넓게는 유령의 서사가 오키나와의 객관현실에 착근함으로써 그로부터 생성된 놀랍고 충격적인 ‘경이로운 현실’이 자연스레 오키나와전(후)의 반(反)폭력의 세계를 오키나와문학에서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Ⅲ. 베트남의 ‘경이로운 현실’: 반(反)폭력의 정치적·윤리적 주체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쟁무기의 엄청난 살상 파괴를 직접 경험한 아시아는 이후 ‘탈식민 냉전’ 질서 아래 ‘열전(熱戰)’을 치러내면서 자연과 인간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지옥의 묵시록’을 보고 있다. 우리가 베트남전쟁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앞서 오키나와전(후)의 ‘탈식민 냉전’의 객관현실을 다룬 오키나와문학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쟁과 연관된 폭력의 과잉은 전쟁의 희생자들 특히 죽은 자를 유령의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 투입하는데, 이때 유령의 출현은 그 폭력의 생생한 현장 또는 그 현장을 상기시키는 장소인 오키나와의 자연과 분리할 수 없다. 때문에 오키나와문학에서 이러한 유령의 서사는 폭력의 과잉 속에서 망각 또는 왜곡되는 기억들을 소환함으로써 반(反)폭력의 세계를 구축하는 문학적 상상력의 힘을 보여준다. 이것은 베트남문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다. “유령은 베트남에서 현저하게 대중적인 문화적 형태이자 역사적 성찰과 자기표현을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¹⁸⁾는 언급이 가리키듯, 베트남문학에서 ‘유령의 서사’는 베트남에 매우 친숙하기 때문에 베트남전쟁과 연관된 폭력의 과잉에 대한 역사적 성찰은 물론, 전쟁의 승자(베트남민족해방을 주도한 북베트남 중심의 혁명주체)와 패자(미국)가 각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전쟁

18) 권현익, 『베트남전쟁의 유령들』(박충환·이창호·홍석준 옮김), 산지니, 2016, 16쪽.

을 정치적으로 전유한 과정에서 빚어진 또 다른 폭력에 대한 반(反)폭력의 문학적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대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바오닌(Bảo Ninh, 1952~)의 장편 『전쟁의 슬픔』¹⁹⁾은 이러한 문학적 상상력을 빼어나게 형상화한 베트남문학의 대표작으로 손색이 없다. 『전쟁의 슬픔』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작중 인물 끼엔의 삶 속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입해오는 베트남전쟁에서 죽은 동료 병사들과 민간인들의 혼령의 출현이다. 이 혼령은 베트남전쟁 기간에도 출현하고 전쟁 이후에도 출현하는데, 작가는 이 혼령을 “산 귀신의 것”(45쪽)으로 이해한다. 베트남전쟁의 혼령에 대한 작가의 이런 이해는 이 소설이 지닌 ‘유령의 서사’를 탐구하는 데 골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 살펴볼 다른 베트남 소설인 반레(Van Le, 1949~)의 장편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의 ‘유령의 서사’를 이해하는 데도 해당된다.²⁰⁾ 그러니까 이들 혼령은 분명 생명이 빼앗긴 ‘죽음’ 상태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죽음’의 절대성에 균열을 낸 ‘살아 있음’을 완전히 소멸시키

19) 이 소설은 ‘사랑의 숙명’이란 제목으로 발간이 되었다가 1991년 베트남작가협회 최고상을 수상한 이후 1993년에 바오닌이 원래의 제목인 ‘전쟁의 슬픔’으로 재판이 발간된다. 하지만 ‘전쟁의 슬픔’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12년 동안 판금 조치와 소장된 책들의 폐기 처분 등 정치적 억압이 이어진다. 이후 2005년 해금 되면서 다시 ‘사랑의 숙명’으로 출간되었고 독자의 폭발적 사랑에 힘입어 2006년 출간시 애초의 이름인 ‘전쟁의 슬픔’을 회복하게 된다. 이 소설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집중 관심을 받으며 베트남 최초로 16개국 언어로 번역 소개되었고, 런던 『인디펜던트』 번역문학상(1995), 덴마크 ALOA문학상(1997), 일본 『일본경제신문』 아시아문학상(2011), 한국 ACC와 ACI아시아문학상(2018) 등을 수상한바, 베트남전쟁에 대한 대중적·문예적·학술적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참고로 바오닌은 196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7세에 베트남인민군대에 자원 입대한후 1975년 베트남전 최후 작전인 사이공진공작전에 참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전쟁의 슬픔』(하재홍 옮김), 아시아, 2012를 대상으로 하며, 이하 소설의 부분을 인용할 때 각주 없이 해당 부분의 쪽수만을 표기한다.

20) 여기서 『전쟁의 슬픔』과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의 논의는 고명철, 「베트남전쟁 안팎의 유령, 그 존재의 형식」, 『푸른사상』, 2018년 여름호에서 해당 부분을 이 글의 문제의식에 따라 대폭 보완하여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하재홍 옮김), 실천문학사, 2002를 대상으로 하며, 이하 소설의 부분을 인용할 때 각주 없이 해당 부분의 쪽수만을 표기한다.

지 못한 그래서 언어의 형용모순을 '산 귀신'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달리 말해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유령'인 셈이다. 이 유령은 오키나와 문학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오닌의 소설에서도 '산 귀신'의 구체성을 입증해보이듯, 베트남전쟁에서 전투가 벌어진 도처(주로 밀림과 촌락 등지)의 현장을 산 자들처럼 배회하며 심지어 그들끼리 말을 주고받는가 하면 산 자에게까지 말을 건넨다. 그리하여 바오닌은 베트남전쟁의 전선 바로 그 격전지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유령으로 배회하고 있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허망하게 끔찍이 죽어간 민간인들의 유령을 베트남의 자연(흙, 숲, 나무, 바람, 계곡, 샘물, 늪, 정글 등)에 겹쳐놓는다. 왜냐하면 이들 유령은 베트남의 대자연 속에서 느닷없이 출몰하는 공포감을 동반하는 괴기스런 존재가 아니라 대자연 속에서 유령의 존재 형식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는 것과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연의 이리저리한 현상으로 존재한다. 그렇게 베트남전쟁의 유령은 베트남의 대자연 속에서 자연스레 살고 있는 '산 귀신'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얻는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경이로운 현실'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바오닌의 문학에서 발견되는 '경이로운 현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전쟁의 슬픔』에서 '고이 혼'(17쪽)으로 불리우는 베트남의 서부 고원은 '경이로운 현실'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베트남전쟁에서 싸운 동료들이 무참한 주검이 된 "혼령과 귀신은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고 밀림 근처, 잡목 숲 모퉁이, 강물 위를 배회"(17쪽)하는 유령의 존재로서 전쟁의 참상을 증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의 "전쟁유령 현상은 역사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성된 인간의 조건을 반영하고, 때로 헤겔의 자이트가 이스트(zeitgeist), 즉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으로 묘사되는 것과 긴밀한 친화성을 가진다."²¹⁾는 점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전쟁의 슬

21) 권현익, 『베트남 전쟁의 유령들』(박충환·이창호·홍석준 역), 산지니, 2016, 48-49쪽.

품』에서 작가가 마주하고 있는 유령은 베트남전쟁의 승자적 입장에서 값비싼 희생을 당한 술한 죽음들을 전쟁 영웅화하려는 유무형의 제도에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슬픔에 질질 끌려 다녔다.”(40쪽)는 문장이 함의한 베트남전쟁에 대한 래디컬한 성찰의 힘든 길로 인도하는 정치적 주체다. 이 정치적 주체는 바오닌이 그 스승으로부터 깨우침을 얻었듯, “전쟁 속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른 잔인한 폭력과 끔찍한 적개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며, “사랑과 인도적인 성품과 관용” “공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상 8쪽)에 깃든 정치성을 실천한다. 때문에 전쟁의 승자적 시선이든지 패자적 시선이든지 바오닌이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에서 주목하는 유령으로서 정치적 주체는 전쟁의 폭력이 인간을 얼마나 비인간으로 전락시키는지 그 민낯을 응시하도록 함²²⁾과 동시에 폭력으로 훼손당한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복원하도록 한다. 이것은 『전쟁의 슬픔』에서 작중 인물이 유령의 존재를 도처에서 만나는 ‘경이로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전쟁의 슬픔’을 위무하는 진정성으로 독자를 감동시킨다.

여기서, 문제의식을 가다듬자. 『전쟁의 슬픔』에서 작가 바오닌은 작중 인물 끼엔의 글쓰기 과정에서 베트남전쟁의 대자연 속에 살고 있는 베트남전쟁의 유령을 만나 현실 세계에서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한 퇴마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산바람이 울부짖는 소리는 바로 병사들의 황폐한 영혼이 내는 목소리”로서 “이승에 사는 우리들은 수시로 그 소리를 듣게 되고 때로는 소리의 의미까지 이해”(17쪽)해야 하는, 달리 말해 전쟁 유령들의

22) 이처럼 전쟁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비유권대 벌거숭이로 노출된 인간은 전쟁 도처에서 비인간성을 목도하는바, 소설의 서사를 통해 이 비인간성은 기억된다. “그래서 부인하고 싶지만 한 우리의 비인간성을 들여다보게 하는 기억이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의 비인간성을 인식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전쟁기계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다. 전쟁기계는 항상 우리만이 인간이고, 우리의 적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이다.”(비엣 타인 응우옌,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희령 옮김, 더봄, 2019, 358쪽)

출몰 속 '경이로운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 심지어 “끔찍한 질병과 끝없는 굶주림이 이곳의 모든 생명을 완전 궤멸시킨 것”(18쪽)과 연관된 귀신의 상처마저 어루만져야 하는 흡사 영매(靈媒)의 몫을 수행해야 한다.²³⁾ 『전쟁의 슬픔』에서 끼엔이 종전 후 전사자들의 발굴유해단원으로 일하면서 그 자신은 살아났지만 동료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처참히 죽은 곳에서 만난 유령으로부터 “암흑 같은 시절을 견디게 해주었고 그에게 믿음과 삶에 대한 욕망과 사랑을 심어 주었다”(71쪽)고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영매로서 스스로를 ‘자기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작가 반레 역시 그의 소설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반레의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은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보다 유령의 존재를 전경화(前景化)한다. 그것은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의 작품 맨처음부터 결말에 이르는 전부가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죽은 소년 병사 빈의 시선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반레의 이 소설은 죽은 자가 전체 서사를 주도하고 있다. 물론, 이 죽은 자는 전쟁 시기 다른 죽은 자들에 대한 증언을 한다. 작가가 이토록 소설 전체의 서사를 점령하다시피 바오닌의 ‘산 귀신’과 동일한 유령의 존재를 전면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작가가 “내가 지금 필명으로 쓰고 있는 ‘반레’라는 이름도 시인이 되고 싶어했지만, 결국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만 친구의 이름이야. 나는 내 친구들을 대신해 오늘을 살고 있는

23) 영매는 지역마다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영매가 주도하는 제의식도 다양하다. 하지만 영매의 개별적 특수성 외에 공유하고 있는 영매의 역할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어떤 소통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맺혀 있는 모종의 억압에 연루된 영혼과 육신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우노 하르바, 『샤머니즘의 세계』(박재양 옮김), 보고사, 2014; 이부영,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2012; 김성례, 『한국 무교의 문화인류학』, 소나무, 2018 참조. 따라서 『전쟁의 슬픔』처럼 베트남전쟁의 폭력 속에 영혼과 육신이 절멸·유린되는 데 연루된 죽은 자와 산 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유령 출몰에 따른 ‘경이로운 현실’ 속에서 작중 인물은 흡사 영매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바오닌의 문학적 상상력에서 이러한 영매의 중개를 통해 유령이 지닌 정치적 주체는 그 현실성을 보증한다.

거지.”²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내 목숨은 이미 지난 전장에서 죽은 목숨이며, 지금의 삶은 단지 ‘덤’일 뿐이라고. ‘덤’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나는 나의 시와 소설 그리고 영화를 통해 벗들의 삶을 증언해야 한다고...”²⁵⁾에서 뚜렷이 고백하고 있듯, 반레는 자신의 삶 자체가 ‘산 귀신’으로서 유령의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반레의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어 무엇 때문에 ‘유령의 서사’가 소설 전체에 배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에서 새롭게 주목하는 유령 존재의 어떤 면이 있다. 이것은 죽은 자를 대신하여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작가가 베트남전쟁에 함몰되지 않은 채 그것에 대한 성찰을 통해 베트남의 개혁개방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도이머이(Doi Moi, 1986) 이후 급변하고 있는 베트남의 현실에 대한 웅숭깊은 비판적 성찰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사실, 작중에서 유령 빈이 전쟁을 수행하는 도중 베트남 인민의 군대 내부에 대한 치열한 자기비판의 과정을 보이면서 군 내부의 상명하복 조직에서 쉽게 무시되는 민주주의적 정동을 부각시키고, 죽고 죽이는 비인간성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베트남 해방전사의 명예와 자기존중을 드높이는 것을 강조하고, 특히 ‘정직’, ‘진실’, ‘양심’ 등의 윤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온갖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일군 전사자들을 기리고 숭배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 유령 빈이 소설 속에서 “칠월 보름에”(293쪽) 할아버지 집을 방문하여 “보름 동안 고향에서 지내면서 할아버지와 담소를 나누고, 절친했던 마을 사람들과 이웃 마을의 사람들을 만난 시간”(292쪽) 속에서 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객관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종전 이후

24) 하재홍, 「반레와 대담: “내가 왜 살아남았을까?”-베트남의 시인 ‘반레’ 인터뷰」, 계간 『실천문학』, 2001년 가을호, 364쪽. 참고로 반레의 본명은 레지투이(Le Di Tui)로 196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17세에 자원 입대한 후 1975년 종전까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25) 반레, 「무엇이 베트남인가」, 계간 『황해문화』, 2002년 가을호, 30쪽.

분명,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으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사회 내부에 발아하면서 사회 기반의 본질이 변화”(293쪽)함으로써, 악무한의 전쟁을 치르면서도 “가슴속 귀퉁이에 변함없이 순결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292쪽)던 그 무엇을 잃고 있다는 간절함이 빈으로 하여금 저승으로 가지 않고 “니옥투이 강변을 따라 계속 황천에서 방황하며 살래요.”(295쪽)라고 할아버지에게 말한다. 그것은 도이머이 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급속히 편입해들어가는 베트남이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발견하고 길러낸바, 유명 빈이 발견한 베트남식 민주주의, 인간의 고매한 품격, 자기존중 등속에 바탕을 둔 윤리와 순결한 영혼의 존재형식이 훼손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그리하여 유명 빈은 다른 유명들처럼 베트남의 대자연과 함께 베트남전쟁 안팎의 ‘경이로운 현실’을 살고 싶다. 그 ‘경이로운 현실’ 속에서 베트남의 해방전사들과 민간인들이 훼손되지 않고 순결한 영혼의 존재형식으로²⁶⁾ “인류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특별한 호의”(279쪽)인 ‘삶’을 평화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이처럼 바오닌과 반레의 소설에서 그려지는 ‘유령의 서사/경이로운 현실’은 베트남전쟁의 폭력을 또렷이 응시하고 성찰하면서 베트남의 현실과 미래에서 반(反)폭력의 세계를 향한 문화적 상상력의 힘을 실천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직접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폭력의 가공할 만한 실체를 직접 경험하였으므로 그 반(反)폭력에 대한 정치학과 윤리학은

26) 반레에게 이러한 존재형식은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성찰해낸 중요한 생의 진리다. 그는 베트남 농민과의 대화에서 이것을 곰곰 숙고한다. “농부의 말은 너무도 지당한 것이다. ‘갈대 숲을 빠져 나와’ 사람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영혼의 가난을 씻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베트남 사람들은 아직 다문명, 다극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맑고 고요한 영혼을 지닐 수 있다면, 보다 명료하게 자신의 나아갈 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빠르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갈대 숲을 만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반레, 『갈대 숲을 빠져 나오다』, 계간 『아시아』 2009년 가을호, 220쪽) 이 성찰은 도이머이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베트남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주제 정립의 문제를 숙고하도록 한다.

한층 미적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을 아주 어린 시절 체험하였고 해상 난민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작가의 소설에서는 반(反) 폭력이 어떠한 문학적 상상력으로 추구되고 있을까.

비엣 타인 응우옌(Viet Thanh Nguyen, 1971~)의 장편 『동조자』²⁷⁾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오닌과 반레의 베트남전쟁 서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진 ‘유령의 서사/경이로운 현실’과 거리가 멀다. 그의 소설에서도 전쟁의 폭력은 서사의 중심적 탐구 대상이지만, 바오닌과 반레의 소설에서 두루 살펴본 것처럼 유령의 존재와 ‘경이로운 현실’이 서사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비엣 타인 응우옌의 『동조자』에서는 베트남에서 생명력을 지닌 유령이 허무하게 무참히 없어진다. 전쟁의 패자인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수행한 미군의 광기를 헐리우드 영화로 재현함으로써 베트남전쟁의 유령마저 철저히 절멸시키고 그 스펙터클한 장면이 연출한 현실 부재의 초과현실을 베트남전쟁의 현실로 대체시킨다. 그러면서 이 초과현실은 베트남전쟁의 유령 서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경이로운 현실’을 마술과 신비로 가득찬 반문명과 야만의 세계로 치부해버린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이 ‘베트남을 구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고 하여, 엄청난 화력을 퍼붓고 밀림을 완전히 제거시킬 목적으로 고엽제²⁸⁾를 살포한 데서 드러나듯, 미국은 상대방 적을 이기는 것을 넘어 아예 그 타자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데 궁극의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야말로 맹목적인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으로써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베트남민족해방혁명의 주체를 절멸시키는 비인간의 야만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면모는 『동조자』에서 베트남전쟁을 영화 촬영하는 두 폭파 장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하나는 B-52폭격기가 적의 은신처를 폭격하는 장면인데, 이 무지막지한

27) 비엣 타인 응우옌, 『동조자 1, 2』(김희용 옮김), 민음사, 2018. 이하 본문에서 소설을 인용할 때 해당 부분의 쪽수만을 표기한다.

28) 미군은 오키나와에 대량의 고엽제를 저장했고 베트남전에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고엽제를 살포했다. 이에 대해서는 개빈 매코맥 · 노리마쯔 사토코,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정영신 옮김), 155-156쪽.

폭격이 적의 “살아 있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땅을 정화하고, ‘킹 콩’(적의 은신처-인용자)이 시체 위에서 승리의 춤을 추고, ‘어머니인 대지’의 얼굴에서 히피의 미소를 지워 버리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는 미국인들이야.**”(『동조자』 1권, 288쪽)란 장면을 통해서, 다른 하나는 이렇게 폭격 촬영을 하다가 남은 휘발유와 폭발물로 계획에 없던 베트남의 공동묘지를 파괴하는바, 감독은 대본에 없는 장면을 줄속으로 만들어 미군을 공격하는 게릴라가 공동묘지에 은폐하고 있으므로 “이 신성한 영역에 155밀리 백린탄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 말살하는 공격”(『동조자』 1권, 291쪽) 장면이 그것이다. 이 두 폭파 장면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살아 있는 상대방 적을 죽이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이미 죽은 자들의 땅을 정화시킨다는 미명 아래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폭파 장면의 스펙터클을 스크린으로 재현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겨냥한 것일까. 베트남에서 씩어지고 있는 베트남전쟁 서사들이 베트남전쟁의 유명 존재를 통해 ‘탈식민 냉전’ 질서 아래 전쟁으로 초토화된 대자연과 대지와 관계를 맺은 ‘경이로운 현실’로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역사적 성찰이 반(反)폭력의 세계를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헐리우드 문화산업은 베트남전쟁에서 죽은 자가 얻은 생명력, 즉 유명 존재를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경이로운 현실’ 자체가 생길 수 없는 불모화된 대지에서 인간의 말초적 쾌락 감각을 흥분시키는 데 몰입한다. 그들에게 전쟁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은 헐리우드 문화산업을 떠받치는 미국의 군수산업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충실하며, 이처럼 전쟁에 대한 스펙터클을 반복 재생산할 수 있는 ‘탈식민 냉전’의 질서를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 활용할 따름이다.²⁹⁾

29) 베트남전쟁을 대상으로 한 헐리우드 문화산업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의 패자 콤플렉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비엣 타인 응우옌은 이러한 점을 ‘기억 관련 산업’의 측면에서 풍부한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그 정치사회 현상학을 예리하게 분석한다. 비엣 타인 응우옌, 위의 책, 137-170쪽 참조.

비엣 타인 응우옌의 『동조자』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유령의 서사/경이로운 현실’이 베트남전쟁 서사에서 반(反)폭력의 세계를 향한 정치적·윤리적 역할을 충실히 보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IV. 맺음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양대 진영으로 재편된 글로벌 냉전체제는 균질하지 않다. 특히 유럽의 냉전과 아시아의 냉전은 그 성격과 내용이 여러 모로 다르다. 무엇보다 유럽의 냉전은 ‘냉전’의 이름에 걸맞게 유럽에서는 2차 대전 이후 ‘열전’이 없었다. 하지만 아시아의 냉전은 한반도와 인도차이나반도, 인도,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국가들 사이의 정규전 및 비정규전이 일어나는 등 현재까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아시아에서는 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 아래 구미와 일본의 제국의 식민주의로부터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탈식민 냉전’의 질서 속에서 술한 ‘열전’을 겪(었)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문학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처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아시아의 ‘탈식민 냉전’에 대한 문학적 응전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오키나와와 베트남은 서로 다른 전쟁을 각기 치렀으나,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폭력의 임계점을 넘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존재 자체를 근절시키려 했다는 점은 두 전쟁이 공유하는 전쟁의 파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글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듯, 오키나와는 베트남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담당하였고, 때문에 일본 본토로 복귀하려는 오키나와가 미군정 및 미국의 군사기지에서부터 해방되고자 한 조국복귀운동에도 베트남전쟁의 문제는 오키나와와 분리할 수 없는 주요 현안이다. 따라서 이들 전쟁과 관련한 문학적 응전은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오키나와전(후)과 베트남전(후)의 객관현실을 다루는 오키나와전쟁 서사와 베

트남전쟁 서사 속에서 출현하는 유령의 존재에 주목한바, 이 유령은 이들 지역의 대자연(해안, 바다, 숲, 밀림, 개울, 골짜기, 고원 등)과 관계를 맺는 장소를 중심으로 전쟁의 폭력을 상기시킴으로써 그것을 망각 및 왜곡하는 데 맞서는 놀랍고 충격적인 '경이로운 현실'을 생성시킨다. 이 '경이로운 현실'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소통의 길을 내고 그들 모두 전(후)의 객관현실에서 반(反)폭력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 정치적·윤리적 주체로서 유령의 정동을 보증해준다. 따라서 이 유령의 정동은 이들 지역에서 한갓 괴기스러운 비현실적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이 지역의 산 자들의 삶과 함께 하는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오키나와전쟁 서사와 베트남전쟁 서사의 문학적 응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흡사한 '유령 서사/경이로운 현실'에 대한 탐구 과제를 남겨둔다. 현재 치열히 진행 중인 아시아의 '탈식민 냉전'에 대한 문학적 응전은 전대미문의 폭력으로 점철된 고통과 상처를 응시하고 반(反)폭력의 평화로운 일상을 구축하는 문학적 상상력을 실천하는 것을 조금도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가와미즈 신이치, 『오키나와에서 말한다』, 이지원 역, 한국학술정보, 2014.
- 개번 매코맥 · 노리마쯔 사또꼬, 『저항하는 섬, 오끼나와』, 정영신 옮김, 창비, 2014.
- 고명철, 「베트남전쟁 안팎의 유령, 그 존재의 형식」, 『푸른사상』, 2018년 여름호.
- _____, 「오키나와에 대한 반식민주의로서 경계의 문학」, 『탐라문화』 49호, 제주대학 탐라문화연구원, 2015.
- 곽형덕, 「마타요시 에이키 문학에 나타난 ‘타자’와의 교섭 과정」, 『오키나와문학의 힘』, 오키나와문학연구회 편, 글누림, 2016.
- _____, 「아시아 · 아프리카 작가회의와 일본」,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10권, 2017.
- 권현익, 『베트남전쟁의 유령들』, 박충환 · 이창호 · 홍석준 옮김, 산지니, 2016.
- 김성례, 『한국 무교의 문화인류학』, 소나무, 2018.
- 메도루마 슌, 「대담: 내 조국의 상처로 인해 나는 작가가 되었다」, 계간 『아시아』, 2018년 가을호.
- _____, 『브라질 할아버지의 술』, 유은경 옮김, 아시아, 2008.
- _____, 『물방울』, 유은경 옮김, 문학동네, 2012.
- _____, 『어근기』, 곽형덕 옮김, 도서출판 문, 2017.
- 문승숙 · 마리아 혼 편, 『오버 데어』, 이현숙 옮김, 그린비, 2017.
- 바오닌, 『전쟁의 슬픔』, 하재홍 옮김, 아시아, 2012.
- 반 레,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 하재홍 옮김, 실천문학사, 2002.
- _____, 「갈대 숲을 빠져 나오다」, 계간 『아시아』 2009년 가을호.
- _____, 「무엇이 베트남인가」, 계간 『황해문화』, 2002년 가을호.
- 비엣 타인 응우옌, 『동조자 1, 2』, 김희용 옮김, 민음사, 2018.

- _____,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부희령 옮김, 더봄, 2019.
- 사키야마 다미, 『달은, 아니다』, 조정민 옮김, 글누림, 2018.
- 소명선, 「사키야마 다미의 <달은 아니다>론」, 『일본문학연구』 50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 _____, 「사키야마 다미론」, 『동북아문화연구』 38집, 2014.
- 신옥희·권현익 공편, 『글로벌 냉전과 동아시아』, 서울대출판부, 2019.
- 아라사키 모리테루, 『오키나와 이야기』, 김경자 옮김, 역사비평사, 2016.
- _____, 『오키나와 현대사』, 정영신 외 공역, 논형, 2008.
- 오세종, 『오키나와와 조선의 틈새에서』, 손지연 옮김, 소명출판, 2019.
- 오시로 사다토시, 「아이고 오키나와」, 손지연 옮김, 『지구적 세계문학』, 2019년 가을호.
- 와타나베 요시오, 『오키나와 깊이 읽기』, 최인택 옮김, 민속원, 2014.
- 우노 하르바, 『샤마니즘의 세계』, 박재양 옮김, 보고서, 2014.
- 유해인, 「트라우마로 자기치유서사로서의 <전쟁의 슬픔>」, 『문학치료 연구』 4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 이부영, 『한국의 샤마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2012.
- 전용갑, 「신환상성, 마술적 사실주의, 아메리카의 경이로운 현실」, 『중남미연구』 33권 1호, 한국외국어대 중남미연구소, 2014.
- 조정민, 『오키나와를 읽다』, 소명출판, 2017.
- 하재홍, 「대담: “내가 왜 살아남았을까?”-베트남의 시인 ‘반레’ 인터뷰」, 계간 『실천문학』, 2001년 가을호.
- 호사카 마사야스, 『쇼와 육군』, 정선태 옮김, 글항아리, 2016.
- 반년간 『지구적 세계문학』, 2014년 가을호.

❖ ABSTRACT

‘Marvelous Real’ in Okinawa and Vietnam,
the World against Violence

Ko, Myeongcheol
Kwangwoon University

Okinawa and Vietnam each experienced different wars in eastern Asia. Both wars showed war's fatal aspects, which tried to root out all life beyond the limit of violence what no one to degree. Above all, Okinawa had a role as a USA military base in the Vietnam War. That's why Vietnam War's problem is so important agenda not to separate from Okinawa. What Okinawa wants to come back Japan, called the return movement to the homeland, tried to emancipate USA military Government and USA's military base. Therefore, we should take particular take notice of the literal response to these war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ghost that appears in Okinawa War's narrative and Vietnam War's narrative. The ghost reminds us of the violence of war that happened in places related to the Great Nature (beach, ocean, forest, jungle, valley, brook, plateau, etc.). And the ghost creates a 'Marvelous Real' to fight against forgetting and being distorted by the violence of war in Okinawa and Vietnam. This 'Marvelous Real' makes a communication conduit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As a political and moral subject, these features improve the ghost's affections to concentrate on how to cement the world against violence in and after war. Hence this ghost's affections are not described as a horrible, abnormal fictional existence but the existence for all of the living in

Okinawa and Vietnam.

In other words, as the literal response to post-colonial cold war, 'Ghost Narrative/Marvelous Real' in Okinawa and Vietnam emerges to retrospect the reason for literature existence, which hopes to the world against violence to be wrapped up all kinds of violence concerned war.

Key Words : post-colonial cold war, Okinawa, Vietnam, Ghost Narrative, Marvelous Real, the world against violence

■ 논문접수일 : 2020. 05. 20

■ 심사완료일 : 2020. 06. 09

■ 게재확정일 : 2020. 06. 10

